

순천시, 장기기증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받아

2009년 등록기관 지정·기증 문화 활성화 조례 제정 6월 말 기준 2만 3천여명 기증 등록...전남도 내 최다

순천시가 제5회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장기 기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근 시장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전수받았다. 시는 2009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희망등록자에게

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관광지, 주차장 이용 등에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는 6월 말 기준 2만 3천여 명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해 전남도 내 시군에서 가장 많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보유해 기증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우수기관

으로 선정됐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순천시 보건소(061-749-6831)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진료소 등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한편, 올해 다섯 번째를 맞는 '생명나눔 주간'은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고흥군, 가을 꽃길 조성해 나들이객 '심신 치유'

황화코스모스 만개...가을 나들이객 발길 이어져



고흥군은 포두면 해창만 등 공한지와 정원에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황화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 나들이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가을의 전령사'라 불리는 황화 코스모스는 늦여름부터 피기 시작해 주황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며, 보통의 코스모스보다 개화 시기가 빨라 이른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군은 지난 7월부터 해창만 꽃길, 호형리 공동체정원, 녹동신향공동체 정원·황화코스모스를 파종해 가을꽃 단지를 조성했다. 최근에는 황화 코스모스가 꽃망울을 터트리면서 만개해 장관을 이루면서, 주말이면 가족 사진을 찍는 나들이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해창만 꽃길은 1969년에 준공한 2,474ha의 간척지 주요 도로변 500m의 구간에 조성됐으며, 간척지 내에 시설된 캠핑장, 산책로, 공원 등과 황금비가 어우러져 가을 해안의 낭만코스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곳이다. 군 관계자는 "고흥의 가을은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과 군민의 심신을 충전시켜 주는 에너지이다"라며, "올해 가을에는 고흥의 가을꽃으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모집

10월 6일까지 산불전문진화대 44명, 산불감시원 57명

광양시가 산불 예방활동과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등을 담당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올해 가을철~내년 봄철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총 101명(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44명, 산불감시원 57명)이며,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으로, 산불감시와 진화 특성상 근무지역 지리에 밝고 기동력을 갖춘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기간 내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대는 광양시 산림소독과로, 산불감시원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직무수행력 평가(개별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하며,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의 모집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gwangyang.go.kr)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거나 산림소독과 산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성 산림소독과장은 "이번 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산불방지 인력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산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제28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여수에서 10월 7일 개막

제28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라남도과 여수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에게 남도 고유의 맛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첫날 개막식과 축하공연에 이어 남도음식 경연대회, 남도사투리와 창작음료 경연대회, 힐링 토크콘서트, 추억의 남도사 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시관으로는 ▲남도 세계음식을 관람하고 시식할 수 있는 주제관 ▲세계 10개국 대표음

식과 남도 전통주, 시군 특화빵 등을 맛볼 수 있는 국제관 ▲전남 22개 시군 음식관 ▲남도 음식 명인관이 운영된다. 또한 남도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글로벌 오감만족 투어, 학술포럼 등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장 내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할 예정이다.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은 체온 체크 및 손소독 실시 후 입장이 가능하다. 정기명 시장은 "아름다운 가을날, 남만이 가득한 여수밤바다와 함께 남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김현근기자



보성군, 지역주민 대상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40명 대상 총 4회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암산자연휴양림(전남환경정질환예방관리센터)에서 사전 홍보를 통해 모집된 지역주민 40명을 대상으로 9월 중 총 4회(20일, 22일, 27일, 29일)에 나누어 진행한다.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 기초건강검진을 비롯하여 원예치료, 제암산 숲 체험, 녹차 추수, 정신건강 증진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조재길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들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고, 치유하는 시간



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성군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853-5500)로 연락하면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보성=김덕순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